



▶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렘브란트, 종이에 분필과 잉크, 1634년. 네덜란드 테일러스 박물관 소장>

금주의 성화

렘브란트가 그린 주님의 얼굴 그림만 갖고도 전시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렘브란트는 구세주의 모습에 몰두하였다. <빛의 화가>라고도 불리는 렘브란트는 얼핏 습작처럼 보이는 이 그림에서 자신의 두 가지 숙업인 빛과 주님의 모습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빛을 끼치시는 장면을 그린 이 그림은 비록 단순하지만 완성된 그림이며 명작이다. 렘브란트는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자랑스럽게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마르 6,7-13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돈도, 여벌옷도, 식량도 갖고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에 의지해야 하고 다른 것들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양식과 의복도 다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1독서 아모 7,12-15 제2독서 에페 1,3-14 복음 마르 6,7-13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딭시다 • 7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공공질서를 지킵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손현기 모세 신부 | 임고성당 주임

예수님은 파견되는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불가결한 것 말고는 지니지 말라고 하신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하신다. 허튼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전도에 헌신하라는 것이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은총을 이야기한다. 하느님께서 당신 선의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정해지고 죄를 용서 받고, 하느님 뜻의 신비를 알게 해 주셨다.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한다.

복음은 제자들에게 주신 권한과 여행 채비, 여행지에서의 처신을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다. 복음의 파견내용과 비교해 보면, 바오로 사도는 복음에 드러나지 않는 제자들이 받은 권한 한 가지만을 충실하게 잘 말해준다. 제자들이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는데 그 선포의 핵심, 전도의 핵심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제자들은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기만 하는 요술쟁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이들이었다. 오직 하느님의 은총을 누리고 전하는, 지팡이 하나, 신발 한 켤레만으로도 족한 은총에 구속된 자유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누리고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가진 것에 자유로운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유치원 꼬마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신부님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손을 든 한 꼬마가 말했다. “마음.” 사실 내 안에는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유치원 꼬마 입에서 묻자마자 1초 만에 마음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보물로서의 그 마음은 가진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는 마음, 하느님 은총 안에서의 자유로움이라. 그런데 유치원 꼬마가 그것을... 줌 놀라웠다.

한 유치원 꼬마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마음, 자유로움이라고 한다. 먼저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되돌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은총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일, 아픔, 욕심 등 어둠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24**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요한 15,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당신 창조질서의 관리자로서 “땅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농민주일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돌봄과 축복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느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자연 재화는 오늘날 국가 간의 심각한 식량과 에너지의 불균형, 도농 간의 격차 심화 등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6%뿐인 농가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올해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의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의 경우 수출 규모와 외환 보유고는 증가하였지만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활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결국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이농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FTA를 통해 세계 1위인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같은 논리로 시작한 멕시코의 경우에서처럼 결국 한·미 FTA는 농민과 도시 월급 생활자들의 삶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주신 재화는 모든 이가 ‘충만한 자기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처럼 한·미 FTA는 지금이라도 약자 권리 보호,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공동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고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 교회는 그동안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운동이야말로 도시와 농촌 신자들이 만나 서로의 삶과 문화, 재화를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생명 운동이요,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도농 신자 공동체는 초대교회처럼 친교를 맺고,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연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외적 편리함과 물질적 소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생명의 가치를 선택하고, 매일 매일을 생명과 노동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배우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농민들과 농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12년 7월 15일 농민주일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 용 훈 주교

■ 금주의 성인 성 보나벤투라



성 보나벤투라 (7월 15일)

교회학자로 공경을 받으시는 보나벤투라 성인(1221~1274)은 중세 최대의 학자 중 한 분입니다. 성인과 쌍벽을 이루는 교회의 학자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들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두 분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두 위대한 학자 성인들은 학문적으로는 종종 의견을 달리 하셨지만 서로를 깊이 존경하셨다. 한 번은 보나벤투라 성인께서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저술하다가 신비경에 빠져 계신 것을 마침 찾아오신 토마스 성인께서 발견하시고는 “성인이 성인과 말씀 중”이라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오셨다고 한다.

복음화 : 말씀에 따라 변화된 삶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주일 말씀

_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실현

아모스 예언자는 양치기이자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었고 사도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우리는 이 양치기와 어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사업을 하십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즉 회개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자 베델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아모스를 추방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부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는 아모스를 쫓아냄으로써 그들의 안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제1독서 말씀에 대하여 시편의 화답송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응답을 합니다.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사도들도 삶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즉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파견됩니다. 사도들은 전교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 것도 지니지 않고 다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만 가지고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치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명은 사회 안에 있는 악에 대항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예언자나 사도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말씀과 교리

_ 교회의 복음전파 사명

아모스와 사도들처럼 우리도 세례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며, 모든 신자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복음 전파에 관한 사명에 대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 평신도들은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사도직을 수행한다.”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2) [\[참고\]](#)

묵상해 봅시다.

- ‘복음화’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사람들을 복음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복음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나와 내 이웃을 복음 정신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음식도 보파리도 돈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간직해야 하겠습니까?

봉사하는 기쁨

익명의 봉사자

2008년도 봄이었습니다. 평소에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우연히 본동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푸드마켓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김○○ 아주머니의 소개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란 곳을 찾아갔습니다.


“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부끄럼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성격인 저는 쭈뼛쭈뼛하며 말하던 그 때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처음으로 한 봉사활동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매일 아침 찾아가 야쿠르트를 전해 드리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조금은 힘이 들었지만,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요구르트를 전해드릴 때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던 어르신들의 모습과 추운 날이면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주시던 손길에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 후 안부확인 봉사활동 외에도 장난감은행, 놀품, Cafe-Bon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본동 복지관에 마련된 카페인 Cafe-Bon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여 2011년 2월부터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커피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한 달에 한번 교육을 받으면서 저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저에게 큰 보람이었지만, Cafe-Bon에서의 자원

봉사활동은 저에게 무엇보다도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서먹서먹하던 이웃주민이 아닌 가족처럼 챙겨주고 아껴주는 언니, 동생이 생겼고, 제가 직접 만든 커피와 와플을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루하던 저의 하루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한 자원봉사활동이 이제 저의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바람이 너무나 차가운 2011년의 겨울날, 저의 가슴은 어느 때보다 따뜻합니다. 

본동사회복지관 링크



2012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사제 서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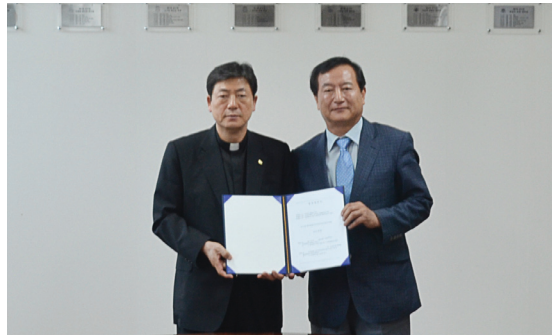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7월 5일(목) 오후 2시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원장:이형우 시몬 베드로 아빠스) 대성전에서 수도원 소속 이상헌(엘리아) 부제와 장경욱(아론) 부제를 사제품에 올리셨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서경우 매일상조 감사
매일상조 주식 교구 기증

매일상조 서경우(요한) 감사는 7월 4일(수) 오전 11시 교구장 대주교님을 예방하고 교구 발전을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매일상조 주식 23%를 교구에 기증하였다.



꼬옥 가지고 다닐 것은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예수성심시녀회 성소 피정

기간: 8.25(토)~26(일), 9.15(토)~16(일)
주제: 성소식별 체험기도
대상: 건강한 미혼남녀
회비: 1인 3만 원
신청: (010)2649-2045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중고캠프

기간: 7.24(화)~26(목), 경남 산청
문의: (010)9890-8809 (5만 원)

봉헌의 삶 체험하기

기간: 7.28(토) 11:00~29(일) 18:00
장소: 부산부곡동수도원, 대상: 청년(남)
주최: 사도성요한수도회
문의: 막시밀리안 마리아 수사신부
(011)9342-1837

이해인 수녀님과 함께하는 해변휴가 피정 (부산)

기간: 7.30(월)~8.2(목) 3박 4일
주제: 바다의 선물
인원: 선착순 80명, 피정비: 18만원
신청: 성분도은혜의집, (051)753-5744~5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7.18(수) 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8.1(수)~3(금)
4박 5일: 7.23(월)~27(금)
8박 9일: 8.6(월)~14(화)
이나시오 2박 3일: 8.17(금)~19(일)
문의: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8

2012 슈발리에 축제 - 새하늘 새땅

기간: 8.10(금)~12(일), 강화피정의 집
대상: 20세이상 남녀 청년
참가비: 6만 원
문의: 예수성심전교수도회
(010)6258-6955

여름피정 - 인카운터

기간: 8.10(금)~12(일)(회비: 3만8천원)
장소: 경남 산청 성심원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주관: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문의: 이 리더아, (010)2570-0939

기도수행 - 렉시오 디비나

기간: 7.30(월)~8.4(토), 7.30(월)~8.8(수)
내용: 렉시오 디비나의 원리와 실제
기간: 8.10(금) 12:00~12(일) 16:00
내용: 젊은이를 위한 렉시오 디비나
문의: 올리베따노수도회, (016)816-1986

성모님 함께하는 6일 - 침묵치유피정

1차: 8.6(월)~12(일), 안양아론의집
2차: 8.12(일)~17(금), 부산마리아피정센터
강사: 안토니오신부(인도 요셉빌신부 후임)
회비: 39만원(신한, 110-235-039961)
문의: (010)9040-2507 / (010)3553-3243

거룩한 독서 (LD) 피정

1박 2일: 8.7(화)~8(수)
7박 8일: 8.31(금)~9.7(금)
문의: 연화리 피정의 집
(054)973-4835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8.17(금) 13:00~19(일) 16:00
장소: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사전접수자만 피정가능, 회비: 3만원
문의: (010)5490-5345
myungkkot@hanmail.net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7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6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미사	7월 17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7월 21일(토) 오전 10시	월성성당
평화를위한 프란치스칸 영성미사	7월 21일(토) 오후 3시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영섭(베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 · 여드름 · 레이저 · 모발이식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2484 익스프레스
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허리 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 오십견/어깨통증 · 두통/어지럼증
· 무릎 관절통 · 스포츠손상 통증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항점신안양육지 쉼터
자연을 접하고 휴식과 영적충전을
얻을 수 있는 교구운영 쉼터!!
4인실부터 16인실까지 완비
예약 : cafe.daum.net/jeonhwasoo
문의 **010-9889-3099**

통합진료 / 맞춤보약
원방한의원
각종 암수술/항암치료/방사선치료후
면역력 증강 및 원기회복
의학박사(전문의) · 한의사 이 정 현(요셉)
전 대구가톨릭대학교수 ☎431-7100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옆 원더플러스파랜드 3층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기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리노류마내과
LINO RHEUMATOLOGY CLINIC
관절염 및 통증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류마티스 내과
원장 김성동(리노)
www.linoclinic.com ☎248-6565
범어네거리 범어롯데캐슬 상가 4층

행사 | 모임

2012년도 하계 사제 성소 피정

중1~중2: 8.6(월)~8(수), 무학연수원
 중3~고2: 8.8(수)~10(금), 무학연수원
 고3대학일반: 8.13(월)~15(수), 한티피정의집
 •중1~고2는 등록생중 참가자격을 갖춘 자
 신청: 각 분당 사무실, 신청마감: 7.22(일)

노동자 미사

일시: 7.20(금) 19: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강당
 문의: 교구 사무국, 250-3051

전례꽃꽂이 연구회 7월 월례회

일시: 7.16(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연구회

제1회 교구장기 게이트볼대회

일시: 9.11(화) 10:00 개회식
 장소: 대구성서 실내게이트볼 구장
 신청마감: 7.31(화)
 문의: 250-3057 / (010)5798-0311

교육 | 모임

2012 중등교원사도직협의회 여름연수

기간: 7.28(토) 17:00~29(일) 13: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청통수련원
 주제: 교직, 막중하고도 아름다운 소명
 대상: 각종 중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문의: 학교복음화담당, 250-3067

대구가톨릭음악원

오르간·성악 전공반 모집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일자: 2차 8.26(일) 출발 (8주, 12주)
 3차 9.23(일) 출발 (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신심 세미나

기간: 7.27(금)~29(일)
 장소: 대구포교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강사신부: 이홍근, 하성호, 송재준,
 서덕교, 정기모

내용: 현시, 조배, 참회예절, 성사, 안수
 신청: 15만 원, (010)5493-1819

노틀담 오르프 단기 지도자 과정

기간: 8.2(목)~4(토) 9:30~18:00
 장소: 상인동 소화 어린이집
 문의: (010)7392-1227 / (010)9034-4911
<http://cafe.daum.net/notredameorff>

청소년문학캠프 - 여름엄마우스

기간: 8.3(금)~5(일) 2박 3일
 장소: 대구가톨릭대 기숙사 및 강의실
 내용: 문학 강의, 백일장, 창작,
 시낭송 등
 회비: 3만 원, 7.22(일)까지, 종교무관
 문의: 대구가톨릭문화회, (010)9493-7928

Show Bible : 제1회 아브라함

기간: 7.24~8.21(매주 화, 19:00~21:00)

장소: 대구바로로딸서원, 회비: 2만원
 대상: 말씀에 맞들이고픈 청년
 문의: 양체사리아수녀, (010)2503-5185
 •성경의 인물을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

통기타, 바이올린, 초코아트, POP
 툴페인팅, 폼아트, 플룻, 대금
 문의: 476-6211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모집

교과부주관 대형국책사업 3관왕
 2014년 개교 100주년의 전통
 입학 후 취업까지 책임
 수시 2,009명 모집 (63개 학과)
 접수: 9.5(수)~11(화), 문의: 850-2580

채용

학교법인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접수기간: 7.18(수)~20(금)
 자세한 사항은 교구홈페이지 참조
<http://www.daegu-archdiocese.or.kr>
 문의: 660-5161

푸른평화생활협동조합 직원 채용

대상: 배송 및 판매직 여 0명
 (스틱 운전 가능자)
 배송직 남 0명
 지역: 상인, 고산(시지) 지역
 서류: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등본
 문의: 632-2148 / 631-3303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ORANGE MOTORS 오렌지모터스
 동대구 IC정비공장
 판금/도장
 일반/보형/수리전문
 각종오일 및 소모품 (교유납 특별우대)
 대표 이상훈(하상바로) 958-0009

건강백세 내과
 건강검진, 암검진, 내과진료
 범어네거리 (752-0141)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원장 채 희 갑 (바로로)

전문과외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논술, 논술
 (수리, 언어, 과학)
 고등부·고3수능·재수생·중등부
 ◆ 서울권 대학
 ◆ 과목별 전공자 수업
 1:1 맞춤 방문수업 원장 주영혜(안젤라)
 신뢰와 믿음의 서울교육원
 T.256-6300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프란치스코) 대구 경북지대 연구회 회장
 개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일치과병원
 D.M 카페 닥초의 치과이야기
 Tel. 053)741-1100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 3번 출구 농협 5층
 원장 신수용(루카), 조창식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센터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